

**알프스 3대 마봉**  
**용프라우-마테호른-몽블랑**  
**사진여행 이야기**

**2019년 6월 25일부터**  
**2019년 7월 5일 까지**  
**(11일간)**

**여행주관 : 한국비경촬영단**  
**사장 이만옥**

**여행참여자 : 이만옥 사장**  
**외 8명**

## 11일간의 알프스의 3대 미봉인 융프라우(Jungfrau-4,158m), 마테호른(Matterhorn-4,478m) 그리고 몽블랑(Mont Blanc-4,808m)의 사진여행

2019년 6월 26일 알프스 3대 미봉인 스위스 융프라우, 마테호른 그리고 프랑스 몽블랑의 사진여행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갔다. 이번 여행을 주관하는 한국비경촬영단의 이만오 사장을 비롯하여 동행하는 8명의 사진작가들이 모였다. 스위스 취리히(Zurich)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12시 30분이라 서둘러 탑승수속을 하고 탑승게이트로 갔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하여 베이징, 몽골, 러시아 상공을 11시간을 비행하여 스위스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에 취리히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하고 나와 스위스 인터라켄(Interlaken)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취리히 공항역으로 갔다.

취리히 공항역에서 6시 15분에 출발하는 IC1열차에 탑승하였다. 미리 준비한 RAIL-EUROPE/ SWISS TRAVEL PASS (2nd Class)가 개인별로 주어졌다. 열차는 취리히 중앙역(Zurich Main station)을 경유하여 베른역(Bern Train Station)에 도착하여 7시 34분에 출발하는



레일유로패스

EC열차로 갈아타고 슈피츠역(Spiez)까지 갔다. 이번에는 8시 5분에 출발하는 R 열차로 다시 갈아타고 인터라켄역을 지나 인터라켄 OST역(Interlaken OST)에 8시 23분에 도착하였다. 열차를 두 번 갈아타고 이곳까지 왔다.

참고로 RAIL-EUROPE의 열차의 종류를 보면 EC(Euro City) 혹은 IC(Inter City) 열차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선 열차를 의미하고 1등석과 2등석이 있고 빠르게 운행되는 열차이다. 가끔은 잠시 1등석에 앉아 가기도 했다. 또 R(Regional) 열차는 조그마한 역에도 정차하는 단거리 완행열차라고 한다.

인터라켄 OST역에서 내려 미리 예약한 호텔을 찾아 짐 가방을 끌고 500여m를 걸어서 Interlaken Hotel을 찾아가 Check-in을 하고 방에 짐 가방을 내려놓고 저녁 9시 30분이 지난 시간에 저녁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을 찾아갔다. 다행히 늦



Interlaken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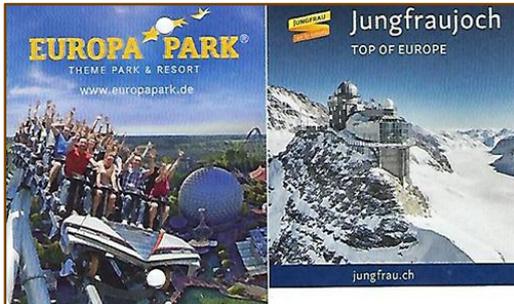
은 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어 여행 첫날의 저녁식사를 현지 식으로 맛있게 하고 호텔로 돌아와 오늘을 마감하고 7시간의 시차를 적응하며 잠을 청했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스위스 인터라켄의 아침 해가 밝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면서 뒤쪽에 있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인터라켄 카톨릭 교회를 둘러보고 호텔에 돌아와 6시 30분부터 부산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뤼렌(Murren)이라는 해발 1,634m의 차가 없는 산골마을을 간다고 했다. 호텔에 짐 가방을 맡겨두고 카메라 장비만 챙겨 8시에 호텔을 나섰다.



인터라켄 카톨릭 교회



인터라켄에서 3일간 사용하는 멀티패스



케이블카 타고 뤼렌 가는길

인터라켄 OST역에서 아침 8시 35분에 라우터부룬넨(Lauterbrunnen)으로 가는 산악열차(BLM)를 탔다. 30여분을 타고가다 라우터부룬넨에서 내렸다. 이곳에서 다시 케이블카로 바꿔 타고 20여분을 공중에 매달려 그뤼지알프(Grutschalp)까지 갔다. 여기서는 산악 협궤열차로 바꿔 타고 빈터에그(Winteregg)라는 곳을 지나 20여분을 더 올라가 뤼렌 마을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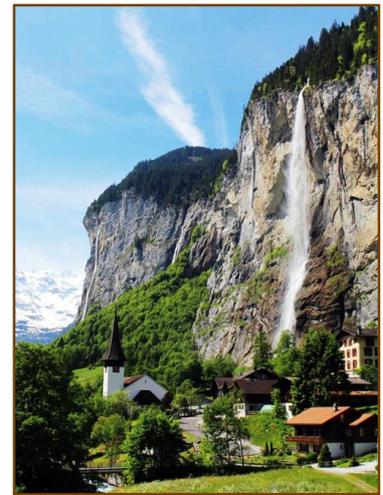
뤼렌이란 아주 작은 전원마을은 청정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차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고산지대의 작은 마을이다. 뤼렌 마을에서는 땡히(Monch-4,107m), 아이거(Eiger- 3,970m), 융프라우(Jungfrau- 4,158m)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알프스 산군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아놀드 룬(Sir Arnold Lunn)의 흉상

이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겨울 스포츠인 알파인스키의 선구자이고 창시자인 영국의 아놀드 룬(Sir Arnold Lunn - 1888~1974)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산악등산가이고 스키산악인 이기도 한 그는 1913년에 알파인스키의 회전(Slalom)과 활강(Downhill) 경기의 규칙을 처음 만들었다. 1922년에 세계 최초의 알파인스키 회전경기 대회가 열렸고, 1931년에 제1회 일파인스키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그를 기리기 위해 2008년에 이곳에 세운 기념비라고 한다.

뮌렌을 둘러보고 빈터에그까지 걸어서 내려왔다. 몇 사람씩 구름을 지어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오는데 선발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헤매고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모두가 빈터에그(Winteregg)까지 내려왔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일부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라우터부룬넨으로 내려오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트래킹하여 라우터부룬넨으로 내려왔다. 미리 내려온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음료수도 사서 마시며 뒷마을 뒷산 절벽에서 쏟아지는 슈타우프바흐 폭포(Staubbach fall)를 구경하기도 했다. 라우터부룬넨이라는 마을은 해발 795m에 위치한 “울려 퍼지는 샘”이라는 뜻을 가진 전원마을로 흔히 ‘폭포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는 많은 폭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인 300m 높이의 슈타우프바흐 폭포가 물을 마을로 내려 쏟는 광경이 너무 웅장하고 경이롭다.



슈타우프바흐 폭포 (Staubbach fall)

모두가 라우터부룬넨의 산악열차 타는 곳에 모여 인터라켄으로 돌아가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호텔로 가서 아침에 맡겨둔 짐 가방을 찾아 끌고 무덥고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인터라켄 OST역으로 다시 갔다. 3시 35분에 출발하는 BOB열차를 타고 그란델발트(Grindelwald-1,034m)로 갔다.



뮌렌으로 가는 산악 협궤열차

역에서 내려 미리 예약하였다는 다운타운



그란델발트(Grindelwald)  
거리풍경



다운타운 롯지(Downtown  
Lodge)

알프스 사진여행 3일째이다. 오늘도 일찌감치 아침식사를 하고 어제와 같이 호텔에 짐 가방을 맡겨두고 카메라장비 가방만을 챙겨 그란델발트 역까지 걸어서 갔다. 아침 8시 17분에 클라이네 샤이텍



융프라우 산악철도 노선

2km정도 오르더니 2,320m에 있는 아이거그랫처(Eigergletscher)에서 잠시 멈춘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한계 고도인 것 같았다. 울창하던 숲의 그림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열차는 다시 출발하여 한 5분인가를 지날 무렵 열차가 덜커덕 철거덕 하며 툽니바퀴가 물

롯지(Downtown Lodge)를 짐 가방을 끌고 물어 물어 찾아갔다. 역에서 7~8분 거리에 위치한 롯지가 언덕아래 위치해 있고 표지판이 너무 작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았다. 유럽의 때 아닌 이상기후로 날씨가 너무 덥다. 그늘진 곳이 없는 인도 위를 가방을 끌고 가려니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롯지에서 방을 배정받아 짐을 들여놓고 바로 나와 저녁 7시경에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 이곳은 저녁 6시가 넘으면 모든 산악열차와 케이블카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하여 이후 촬영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일찍 저녁식사를 하고 롯지로 돌아와 오늘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융프라우요흐로 오르는 산악열차

(Kleine Scheidegg)으로 가는 WAB 산악열차를 타고 30여분을 올라가 해발 2,061m에 위치한 클라이네 샤이텍 역에 도착했다. 이곳이 융프라우 철도의 기점 역으로 빨간색의 산악등반열차인 JB열차로 갈아타는 환승역이다. JB산악열차는 클라이네 샤이텍에서 융프라우요흐까지 9.3km를 운행하는 산악철도이다. 우리를 태운 열차는 정확하게 9시 2분에 융프라우요흐로 출발한다. 열차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를

리는 소리가 들리며 급경사인 산봉우리를 향해 오르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 JB 산악열차를 타고 오르는 곳이 융프라우가 아니라 유럽의 정상(Top of Europe)이라고 불리우는 융프라우요흐(Jungfrauoch)이다.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융프라우요흐, 독일어로 Jung은 젊은, Frau는 처녀, Joch는 봉우리 라는 뜻으로 “처녀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융프라우요흐(3,454m)를 오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가장 높은 곳에 기차역이 있고, 스픝크스(Sphinx)전망대가 있고, 알레치(Aletsch)빙하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JB산악열차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암벽을 뚫어 만든 터널을 열차가 멈춰선 곳은 융프라우요흐로 올라가는 첫 번째 정거장인 해발 2,865m의 아이거반트(Eigerwand)로 딱 5분을 정차하는데 이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역에 설치된 전망용 유리창을 통해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나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고 했다. 전망창을 통해 암벽 아래로 넓게 펼쳐진 순백의 빙하가 환상적이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느라 부산한데 역무원이 호루라기를 분다. 잠시 내렸던 관광객들이 부산하게 다시 열차에 오른다. 열차가 출발하여 해발 3,158m에 위치한 두 번째 정거장 아이스메르(Eismeer)역에 다시 5분간 정차를 한다.



융프라우의 산악열차 터널

융프라우요흐로 오르는 산악철도는 단선 철로이지만 두 개의 정거장이 있는 곳에는 복선으로 되어 있어 오르내리는 열차가 이곳

에서 서로 교차한다. 산악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가끔 안내방송도 나오는데 우리말 방송도 흘러나와 정감을 더하고 있다. 열차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융프라우요흐의 시설물 안내가 방영되고 날씨 정보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클라이네 샤이텍역을 출발한 열차가 47분을 운행하여 9시 49분에 정확하게 융프라우요흐역에 도착했다. 역시 아직도 지하 동굴 속이다.

열차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약간 어지럽다고 느껴지더니 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졌다. 잠시 멍하니 벽을 보고 한숨을 내 쉬었다. 등어리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느낌이 났다. 잠깐 사이지만 정신이 혼미해 지는 것 같았다. 다른 일행들은 앞서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우두커니 서 있으니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며 한발을 움직여 보니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심호흡을 몇 번하고 나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란델발트의 1,034m에서 1시간도 되지 않아 3,454m까지 올라왔으니 갑작스러운 고도 차이로 인한 고산 기압과 산소 희박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졌다. 백두산 여행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



융프라우요흐 내 시설물 배치도

여행하면서 이곳에 올라와 본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같을 수야 없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바쁘게 움직여 안내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맨 먼저 설원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아 알레치빙하가 내려다 보이는 밖으로 나갔다. 설원 위에 스위스 국기가 꽂혀있는 곳에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융프라우산과 22km에 달하는 알레치빙하를 바라보며 40년 전인 1979년 12월 하순에 유럽을



융프라우산(4,158m)과 알레치빙하 계곡

백설의 산야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단지 스프링크스 전망대가 많이 바뀌었을 따름이다. 스프링크스 전망대는 1924년에 융프라우요흐의 작은 휴게소로 출발하여 1970년에 조그만한 전망대가 세워졌고, 1996년에 높이 108m의 복합건물로 개축되면서 고속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다. 이곳을 처음 왔을 때를 기억속에서 끄집어내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가장 궁금했던 곳이 얼음궁전(Ice Palace)이었다. 1930년대에 빙



40년전 융프라우에 올랐던 내모습

하 밑 30m 아래에 만들어진 얼음궁전은 끊임 없이 다시 깎고 다듬어진다고 한다. 방문객의 체온이 얼음을 녹이게 되어 얼음궁전은 영하 3도를 항상 일정하게 냉각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하통로 따라가다 보면 벽면에 산악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사진 자료가 전시 소개되어 있는데 융프라우요흐까지의 산악철도와 터널 건설공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초 터널공사 당시의 모습



얼음궁전의 Top of Europe 얼음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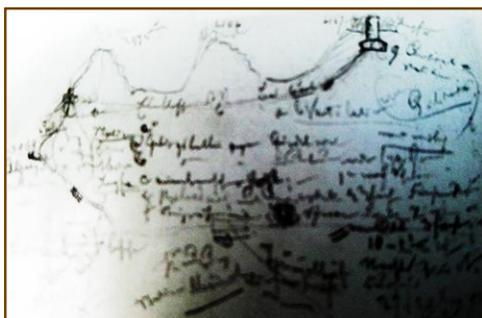


얼음궁전의 동물 조각들

융프라우요흐역에 내려 지하통로를 따라 지나다 보면 융프라우요흐까지 오르는 산악열차를 구상하고 설계한 아돌프 구에르 켈러(Adolf Guyer Zeller)를 기리기 위한 흉상이 세워져 있다. 그는 스위스의 철도의 왕이라 불리는 엔지니어 기업가였다. 그가 1893년 8월에 알프스를 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에 아이거산(Eiger)과 뫼히산(Monch)의 암벽을 뚫어 융프라우 정상까지 톱니바퀴 철도를 건설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바로 연필 스킷치로 클라이네 샤이텍역을 출발하여 3,070m의 아이거산의 암벽과 4,099m의 뫼히산 허리의 석회암



아돌프 구에르 켈러(Adolf Guyer Zeller)의 흉상



산악철도 구상 연필스케치

반을 뚫고 3,454m의 융프라우요흐까지 오르는 산악열차 선로의 코스를 설계했다. 특히 암반 동굴 속의 가파른 철로를 오르기 위해서는 토블러라는 톱니바퀴 레일도 함께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으로 스위스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어 1896

년 7월 드디어 100여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를 투입하여 철도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년 후에 클라이네 샤페에서 아이거 클레처 구간을 개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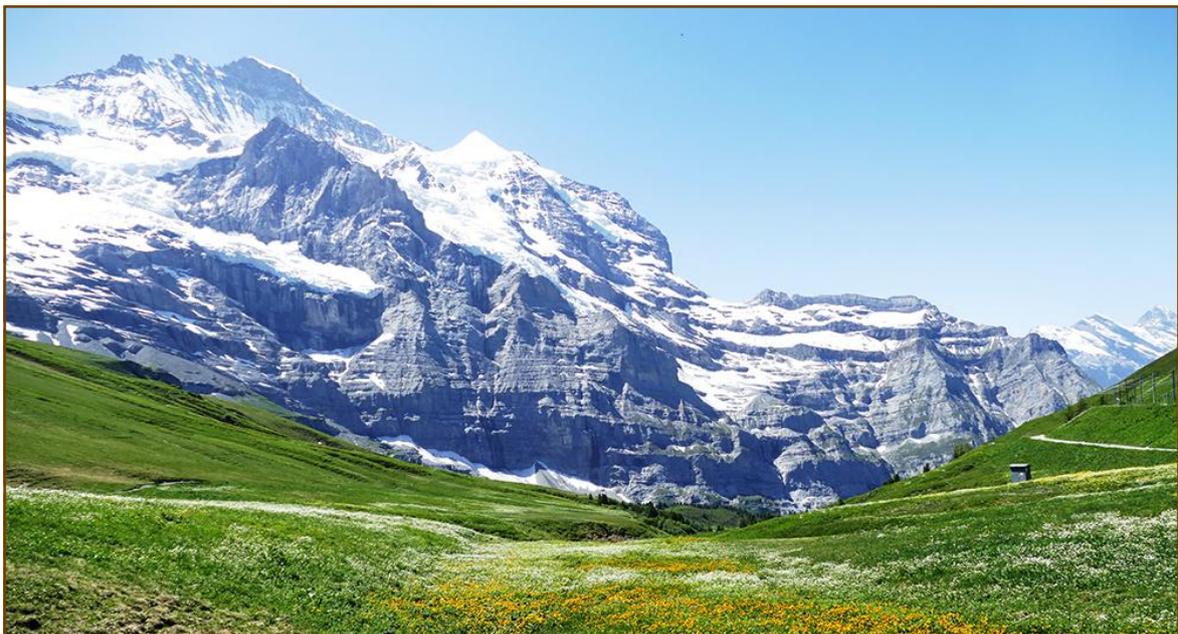


응프라우요흐의 터널 통로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우여곡절 끝에 1912년 2월 12일에 종착역인 응프라우요흐까지 터널이 관통되고 마무리 공사를 하여 그해 8월 1일 스위스 독립기념일에 총길이 9.3km, 터널길이 7km의 산악철도가 착공 16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응프라우요흐를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힘으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숨 막힐듯 한 절경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정교하게 표현할 만한 글 솜씨가 없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응프라우요흐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클라이네 샤페역까지 내려와 산악열차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는데 언덕 아래에 핀 야생화 군락이 또 우리를 붙잡는다. 모두가 내려가 야생화를 앞에 두고 멀리 쳐다보이는 응프라우 산군을 촬영했다. 사진을 찍고 올라오니 조그마한 부스에 예쁜 아가씨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다. 날씨가 덥기도 하여 큰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까 하고 주문을 하면서 유로화를 건네주니 안 된다고 한다. 주머니에 스위스 프랑이 없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유럽 국가로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 외교국이라고 한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판매원



야생화가 만발한 언덕아래서 올려다 본 응프라우

에게 물어보고 오더니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따져 계산을 해 보고 팔 수 있다고 하여 겨우 하나를 사 먹었다.

클라이네 샤이텍역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12시 33분에 출발하는 그란델발트(1,034m)로 가는 산악열차를 타고 내려와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곤돌라를 타는 곳에서 피르스트(First-2,168m)로 올라갔다. 곤돌라는 수직 상승하듯이 오르면서 보어트(Bort), 슈렛펠트(Schreckfeld) 등의 곤돌라 중계역을



산악열차를 기다리며 잠시

지나 피르스트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바흐알프제호수(Bachalpsee)까지 트래킹을 하기로 했는데 일행 9명 중에서 3명만 참여를 했다. 피르스트에서 구미휴터(Gummi-Hutter 2,262m)를 지나 바흐알프제호수까지 3,2km를 50여분을 걸어 호숫가에 도착하였다. 호수에는 주변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 눈 속의 호수에 반영되는 알프스 산군을 열심히 촬영했다. 촬영을 마치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왔다. 다른 일행들은 암벽 절벽에 만들어 놓은 Cliff Walk에서 알프스 산군을 구경하고 곤돌라 타는 곳에서 다시 만나 그란델발트로 내려왔다. 다운타운 룻지에서 짐 가방을 찾아 그란델발트역에서 6시 19분에 출발하는 인터라겐에서 얼마 멀지않은 빌더스빌(Wilderswil)이라는 곳으로 열차를 타고 갔다. 오늘 또 호텔을 옮기는 모양이었다.



바흐알프제(Bachalpsee) 호수

역에서 내려 안내하는 대로 짐 가방을 끌고 따라가는데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매일 짐 가방을 끌고 호텔을 옮겨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호텔을 찾아 마을로 들어서서 한참을 가도 어디에 호텔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일행들 모두가 지쳐 설만한 곳을 찾아 휴식을

갖기로 하고 이만○사장과 다른 한 분이 동행하여 마을 안쪽에 있는 다른 호텔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호텔에서 전화를 해보고 위치를 알았는지 택시 두대를 불러왔다. 짐 가방을 모두 택시에 싣고 예약된 호텔로 가는데 완전히 걸어서 찾아온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택시를 타고 10여분 만에 예약된 Hotel Steinbock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와 보니 호화롭지는 않으나 조금 고풍스러운 호텔인데 1797년에 문을 연 호텔로 220년이란 역사가 있는 호텔이고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다른 종업원들이 보이질 않았다. 저녁시간이 늦었지만 호텔에서 가까운 마을 어귀에 있는 식당을 찾아 저녁식사를 하러갔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번 여행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먼 거리를 옮겨 다니는 것만큼은 너무 힘들어 내일부터는 짐 가방을 끌고 50m이상 돌아다니는 여행은 계속하지 말자고 했다.



빌더스빌(Wilderswil)의 Hotel Steinbock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풍스러운 호텔 주변을 산책을 했다. 호텔 바로 옆에는 잘 꾸며진 묘지와 함께 있는 12세기경에 세워졌다는 오래된 교회(Kirch Gsteig)와 호텔 앞을 흐르는 Lutschine라는 개울(강?)에는 1738년에 놓았다는 중세의 나무로 만들고 지붕이 있는 다리 Vereinigte Lutschinen이 놓여져 있는데 그냥 봐서는 위험할 것 같아 보이는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건너다닌다. 아침 7시 30분, 호텔에 마련된 아침식사를 간단히 하고 오늘도 다름없이 호텔에 짐 가방을 맡겨두고 카메라 가방만을 메고 알파인 가든(Alpine Gstden)이라는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1,967m)라는 곳으로 갔다. 먼저 빌더스빌역에서 산악열차를 탔다. 빌더스빌에서 쉬니게 플라테를 운행하는 산악열차는 두 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일반열차와 같이 유리창이 있는 열차이고 또 하나는 아주 고풍스럽고 귀엽게 꾸민 빨간 두 칸짜리 열차로 지붕만 덮여져 있고 창이 없는 열차로 우리는 이 열차를 탔다.



묘지와 함께 있는 오래된 교회 (Kirch Gsteig)



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는 다리



빌더스빌역의 산악열차

서로 마주보는 나무의자에 빈자리가 없어야 출발하는 것 같았다. 역무원들이 빈자리를 채우느라 부산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날에 기차 타는 느낌을 주기에 손색이 없다. 산악열차는 빈자리를 모두 채웠는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숲을 지나고 목초지를 지나고 그냥 알프스의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점점 고도를 높여 올라간다. 한참을 올라가던 열차는 간이역인 것 같은 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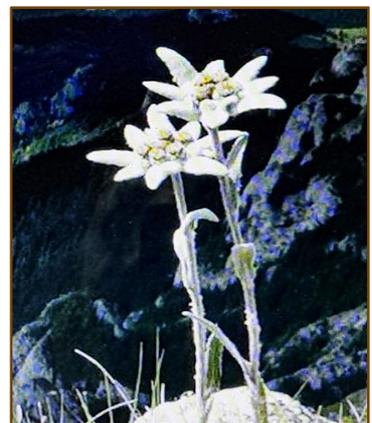
라이트라우넨(Breitlauenen)역에 잠시 멈춰선다.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해발 684m의 빌더스빌에서 1,967m의 쉬니게 플라테까지 1,400m의 가파른 경사 철로를 따라 올라간다. 쉬니게 플라테역에 도착하니 자그마한 역사와 앞이



알파인 가든(Alpine Gstden)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1,967m)

흰하게 뚫린 알프스의 설산이 산군을 이루어 이어져 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을 품은 알프스의 설산은 유럽의 지붕이라고 할만하다, 만년설로 희게 빛나는 암벽들은 장엄하고 듅직해 보인다. 검푸른 빛이 감도는 계곡과 능선을 따라 언덕과 분지를 뒤덮고 있는 야생화 군락이 이곳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만하다.

혼자서 야생화가 만발한 능선에서 병풍처럼 둘러쳐진 알프스의 산군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문득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70년대에 영화를 본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주인공 마리아가 쓴 회고록에 트랩가문의 합창단 이야기에 나오는 명곡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의 명곡과 함께 나치의 수색을 피해 수녀들의 도움으로 폰 트랩 가족이 알프스 산을 넘어 스위스로 망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의 알프스가 아닐지라도 이곳이 꼭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 알프스의 초원 같고 아버지 폰 트랩 대령이 부르는 에델바이스가 들려오듯 메아리로 맴돈다.



Edelweiss(에델바이스)꽃

## Edelweiss(에델바이스)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반겨주네  
작고 하얀  
깨끗하고 밝은  
나를 보는 것이 행복한 듯 보이는구나  
눈의 꽃  
언제나 항상 활짝피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활짝피고 영원히 자라나길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길



슈니케 플라테 - 알파인 가든

알파인 가든으로 알려진 이곳은 다양한 알파인 식물들이 저마다 이름표를 달고 있으나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처음 보는 꽃과 식물이 너무 많다. 여기에 자생하는 꽃과 식물이 무려 65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슈니케 플라테 - 알파인 가든의 야생화

이곳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스위스 전통악기 알프호른(Alphorn)을 연주한다. 때맞추어 도착한 우리도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호른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곳 관광청의 직원들 이라고 한다. 비밀의 정원인 쉬니게프라테는 융프라우, 뮌히, 아이거 등 3대 봉우리에 둘러싸여 알프스 산군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두어 시간을 촬영하고 11시 41분에 다시 산악열차를 타고 빌더스빌로 내려왔다. 열차에서 내려 역 건너편에 있는 한국인이 호텔, 식당,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면세점에 들러 약간의 여행 선물을 샀다.



스위스 전통악기 알프호른(Alphorn) 연주



체르마트(Zermatt) 홀리데이 호텔(Holiday Hotel)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침에 나오면서 맡겨놓은 짐 가방을 찾으러 Hotel Steinbock로 가서 짐을 찾아 빌더스빌역에서 열차를 타고 인터라겐 OST역(환승) - 스피츠(Spiez환승) - 비스프(Visp환승)를 경유하여 3시간이 넘게 걸려 오후 5시 14분에 다음 목적지인 체르마트(Zermatt)에 도착하였다. 체르마트역에서 바로 택시 2대를 불러 미리 예약된 홀리데이 호텔(Holiday Hotel)로 향했다. 호텔에 Check-in을 하고 방을 배정받아 짐을 들여놓고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 멀리 마테호른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떨결에 카메라를 들고 그림으로만 보던 체르마트의 뽀족한 정

상을 찍어보았다. 그리고 바로 체르마트 변화가로 내려와 어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카메라를 챙겨들고 마테호른산(4,478m)이 가깝고 전망이 좋은 곳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다. 어느 장소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있고 마테호른산의 위용이 넓게 드러난 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촬영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마테호른산(4,478m) 노을



마테호른산(4,478m) 여명

6월29일 토요일 오늘은 벌써 여행 닳새째가 되는 날이다. 모처럼 새벽에 일어나 어제 저녁에 촬영하던 마을로 내려가 마테호른산에 내려 비치는 여명의 햇살을 받은 모습이 어찌면 금물로 위에서 아래로 도색하는 화가의 붓놀림처럼 마테호른산은 황금 빛으로 물들어갔다. 뽀족한 마테호른산에 급박을 입히는 자연의 힘이 정말 장관이다. 한 순간이라도 놓일

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마디로 너무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로고로 익숙하게 기억되어 있는 산이 마테호른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테호른산이 아니고 모양새가 비슷한 미국 유타주에 있는 벤 로몬드 산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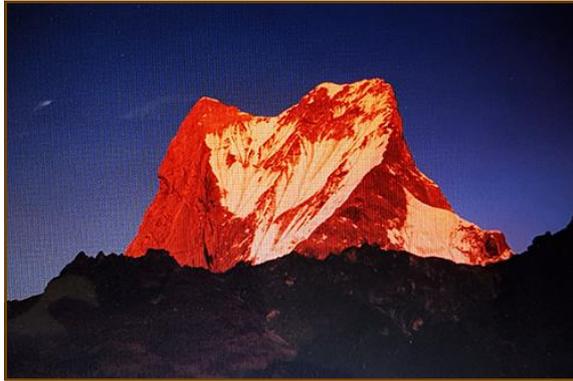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로고

1912년에 설립된 파라마운트 픽처스 (Paramount Pictures Coporation)는 1924년에 파라마운트사의 디자이너인 윌리엄 워드스워스 호킨슨(William Wasdsworth Hokinson)이 자기 고향인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벤 로몬드 산 (Ben Lomond Mt.)을 보고 디자인 한 것으로 로고의 제목이 “Mountain of Dreams”이라고 하며, 2012년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로도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벤 로몬드 산이 스위스의 마테호른산과 흡사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마테호른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미봉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세계 3대 미봉은 네팔 히말라야의 마차푸차레(Machapuchare-6,993m), 아마다블람(Ama Dablam-6,853m), 그리고 알프스의 마테호른(Matterhorn-4,478m) 이라고 한다.



마차푸차레(Machapuchare-6,993m)



아마다블람(Ama Dablam-6,853m)

새벽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하고 8시에 마을을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마테호른 글레시아 파라다이스(Glacier Paradise)로 오르는 곤돌라 탑승장 슬루마텐(Schlugmatten)으로 갔다.

모두 곤돌라 1일 이용권을 지급받아 곤돌라에 올랐다. 곤돌라를 타고 푸리(Furi-1,867m), 슈바르츠제(Schwarzsee-3,583m), 푸그(Furgg-2,427m), 트로케너 슈테크(Trockener Steg-2,939m)를 경유하여 글레시아 파라다이스



글레시아  
파라다이스(Glacier  
Paradise-3,883m) 전망대

(Glacier Paradise-3,883m) 전망대에 도착하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알프스의 산군과 마테호른의 웅장한 모습을 여러 각도로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을 모두 끝내고 트로케너 슈테크까지는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터는 슈바르츠제까지 트래킹을 하기로 했다. 트래킹을 포기한 두사람은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 슈바르츠제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곤돌라에서 내려 계곡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조그마한 호수들이 연이어 옥색 빛



공중에 매달린 곤돌라

을 받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호수를 향해 내려가는 정해진 길이 없었다. 비탈진 계곡과 능선을 따라 울퉁불퉁한 돌과 자갈 위를 무작정 호수만을 목표로 삼아 걷다보면 계곡에는 녹지 않은 눈이 쌓여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건너야 했으므로 무릎까지 빠지는 눈 쌓인 계곡을 용감하게 건



얼음이 살짝 녹은 옥빛 호수에 잠긴 마테호른

넜다. 이렇게 몇 차례를 반복한 끝에 아직 녹지 않은 눈 덮인 호수까지 내려왔다. 호수 한쪽에는 얼음이 녹아 옥색 물빛 속으로 마테호른의 위용이 거울에 비치듯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옥색 물속에



얼음이 살짝 녹은 옥빛 호수에 잠긴 마테호른을 찍는 사람들



반영된 마테호른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여러 개의 호수를 찾아 저마다 다르게 비치는 호수 물속의 또 다른 모습의 마테호른을 카메라에 담으며 퓨그 곤도라 중계 지점 가까이 내려와 눈이 녹아 흐르는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잠시 쉬고 있으려니 이사장이 마지막 호수에서 촬영하고 내려오면서 윗도리를 벗어 둔 채 내려왔다고 하며 다시 올라갔다가 온다고 한다. 난감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사장이 올라갔다 올 때까지 계곡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며 여행이야기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옥시나 해서 퓨그 곤도라 중계소(2,427m)에서 곤도라를 탈 수 있을까 하고 둘러보니 탑승 금지된 곳이었다. 이사장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사장이 내려오고 있었다. 윗도리 옷은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위로 쳐다보이는 슈바르츠체(2,583m)까지 급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 먼저 와 있는 두 사람과 만나 이곳에서 스파게티와 음료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고 주변 풍광을 촬영하며 휴식을 하다가 오후 4시경에 곤도라를 타고 체르마트로 내려와 호텔로 가서 휴식을 가졌다. 저녁 7시가 되어 모두 체르마트 시내로 나가 저녁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는데 적당한 식당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찾기가 어려웠다. 거리 주변을 살펴보다가 일본음식점이 보여 거기서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트레킹으로 지친 몸을 달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행히 오늘은 호텔을 옮기지 않았다.



글레시아 파라다이스 패스

2019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도 호텔을 옮기는지 아침 일찍 호텔에 짐 가방을 맡겨두고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하 등산철도 후니쿨라(Funicula)를 타고 슈네가 파라다이스(Sunnegga Paradise - 2,288m)까지 올라갔다.



후니쿨라 타러가는 통로



후니쿨라 타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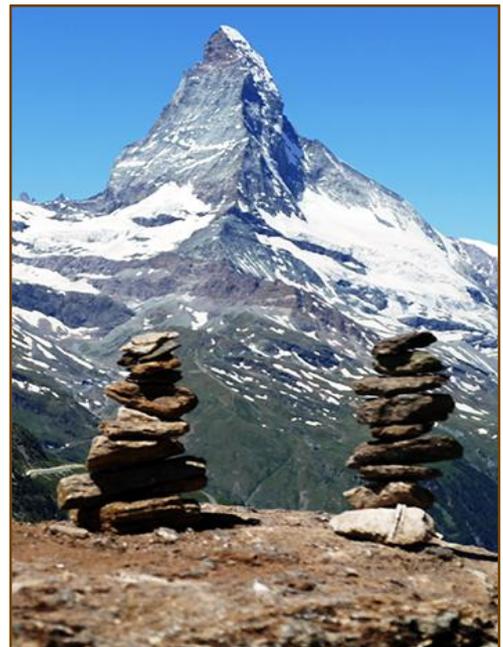
거의 45도 정도의 경사진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후니쿨라는 사람이 설 수 있는 발판과 앉을 수 있는 의자는 경사에 맞춰 수평으로 제작되어 있고 역 자체가 경사진 역이었다.

슈네가에서 다시 곤도라로 바꿔 타고 블라우헤르트(Blauherd-2,588m)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전망대 주위를 둘러보고 마테호른의 5대 호수 중의 하나인 슈텔리제 호수(Stellisee)로 30여분을 걸어갔다. 마테호른의 5대 호수는 슈텔리제를 비롯하여 그린드예(Grindjisee), 그윈(Grunsee), 무스이에(Moejisee) 그리고 라이(Leisee)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슈텔리제 호수까지만 갔다.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지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거울같이 맑은 잔잔한 물결



슈텔리제(Stellisee) 호수

속으로 비치는 마테호른의 위용이 또 한 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맑은 호수와 마테호른의 어울림이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지천에 널려 자태를 뽐내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호수와 마테호른의 어울림을 더해준다. 호수와 야생화 그리고 마테호른을 마음껏 촬영하고 왔던 길을 쉬엄쉬엄 되돌아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길옆 바위에 누군가가 소원을 빌었는지 돌탑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오른쪽에 작으나마 아홉 장의 평편한 돌을 가져다 돌탑을 하나 만들어 세웠다. 내가 만들어 세운 돌탑과 마테호른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알프스의 모든 산을 다스리는 신에게 나와 우리 일행 모두가 알프스의 험한 산길을 무사하게 다니며 좋은 사진을 만



마테호른을 바라보며 쌓은 돌탑

들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기를 합장하여 기도하고 아무쪼록 작은 돌탑이나마 무너트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길을 재촉하여 내려왔다. 다시 곤도라와 후니쿨라 지하 열차를 타고 테르마트로 내려와 맥도날드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했다. 오늘은 호텔로 가서 짐 가방을 들고 나와 두 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마테호른 산에서 조금 더 가까운 Hotel Adonis로 옮겨 Check-in을 하고 오후 일정은 휴식을 하고 해가 질 무렵에 호텔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 다리 위에서 마테호른의 일몰사진을 찍으러 내려갔으나 마테호른에 비치는 저녁 햇살이 별로여서 호텔에서 가까운 Papperla Pub에서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 6월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Hotel Adonis



Papperla Pub

오늘은 7월 초하루 월요일이다. 사진 여행을 온지도 벌써 일주일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제 저녁에 내려갔던 다리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은 마테호른을 찍었다. 구름 속에 반쯤 가려진 마테호른에 여명의 햇살이 작게 비친다. 그러나 환상의 그림이 아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하고 짐 가방은 호텔에 맡겨두고 카메라



2019년 7월 1일의 마테호른 여명



고르너그라트반(Gornergrat Bahn-3,089m) 전망대

라 가방만 메고 길을 나섰다. 오늘은 고르너그라트반(Gornergrat Bahn-3,089m) 전망대로 올라간다고 한다. 호텔에서 마을 버스를 기다리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체르마트역 건너편에 있는 고르너그라테반로 올라가는 전용산악열차 타는 곳(Matterhorn Railway - Gornergrat Bahn-1,608m))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김진○사장이 버스를 기다리던 곳에 삼각대를 두고 왔다고 하며 다시 찾으러 갔다. 조바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나고 삼각대를 찾아들고 뛰어왔다. 다행이

었다. 모두가 모여 9시 35분에 출발하는 산악열차를 타고 오늘 가는 목적지를 향해 올라갔다. 열차는 간이역인 비체(Wichje)에 잠깐 정차를 하고 바로 다시 출발하여 핀델바흐(Fidelbach-1,714m) → 리펠알프(Riffelalp-2,222m) → 리펠베르그(Riffelberg-2,582m) → 로텐보덴(Rotenboden-2,815m)역을 지나 고르너그라트반(Gornergrat Bahn-3,089m)역에 10시 15분에 도착하여 전망대로 올라갔다.

산악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독일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나오고 있어 반갑기 그지없었다. 정상 전망대에서 마테호른산을 비롯하여 그저께 올라가 보았던 글레시아 파라다이스도 보이는 것 같아 알프스 산군의 봉우리와 끝없이 흐르는 빙하계곡 등을 촬영하고 일부 사람들은 로텐보덴을 지나 리펠제(Riffelsee-2,766m)를 경유하여 리펠베르그까지 트레킹하여 내려가고 일부는



알프스 산군의 봉우리와 빙하계곡

다시 산악열차를 타고 리펠베르그로 내려가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하였다. 리펠베르그역에서 다시 만나 체르마트까지 내려와서 역 건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사장과 다른 한 분이 호텔로 가서 맡겨둔 짐 가방을 택시에 싣고 돌아왔다.

오늘은 프랑스 샤모니(Chamonix - Mont Blanc)로 가는 날이다. 체르마트역에서 오후 3시 13분에 비스프(Visp)로 가는 R열차를 탔다. 정확하게 1시간 9분



마르티뉴(Martigny)-샤모니 몽블랑(Chamonix Mont Blanc) 철도 구간표

을 달려 비스프역에 도착하여 프랑스 마르티니(Martigny)로 가는 플렛트홈을 찾아 IR90열차로 바꿔 탔다. IR열차는 고속으로 달려 59분 만에 마르티니역에 도착하였다. 열차에서 내려 벨로신(Vallorcine)으로 가는 R열차를 타기 위해 플렛트홈을 찾아 이동하였다. 프랑스의 벨로신역과 스위스의 샤프트랑(Chatalard)역 사이에 국경이 있으나 아무런 통과 절차 없이 지나간다. 벨로신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고 47분만에 벨로신에 도착하여 이번에는 샬모니로 가는 TER열차로 갈아탔다. 열차는 37분 만에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프랑스 샬모니 몽블랑(Chamonix Mont Blanc-1,037m)역에 오후 7시가 조금 지나 도착하였다. 열차를 4번 갈아타고 3시간 32분을 달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번을 열차를 갈아타는 동안 여유 있게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없이 바로바로 연결되어 우리



프랑스 샬모니 몽블랑(Chamonix Mont Blanc)역



샬레호텔(Chalet Hotel Le Prie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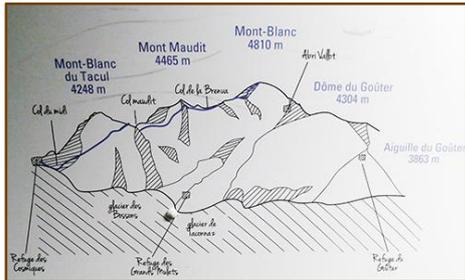
가 열차에 오르자 바로 출발하는 기막힌 순간의 연속이었다. 샬모니역에서 미리 예약한 샬레호텔(Chalet Hotel Le Prieure)로 택시를 타고 갔다. 방을 배정받아 짐 가방을 들여놓고 나와 호텔에서 가까운 어느 인도음식을 하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 열차에 시달린 몸을 달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아침 일찍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촬영할 장비를 챙겨두고 8시 30분에 호텔을 나섰다. 오늘은 샬모니 몽블랑의 에귀디미디(Aiguille de Mide-3,842m)전망대로 간다고 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몽팡베르(Montenvers) 탑승장으로 갔다. 탑승권을 구입하여 나눠주었는데 우리의 탑승 대기번호가 42번이었다. 9시가 안되어 탑승장에 도착하였는데 탑승차례를 기다리다가 탑승 순서를 알리는 전광판에 42번이 표시되자 바로 탑승을 하기 위해 입장을 하는데 이곳에는 보안검사를



몽팡베르(Montenvers) 탑승장에서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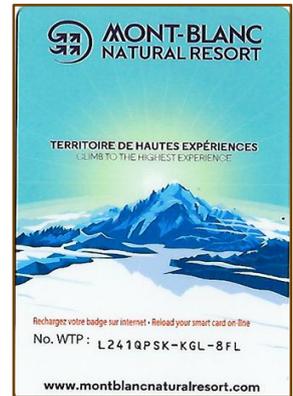
하고 있었다. 9시 40분에 탑승을 마치자 50여명을 태운 케이블카는 수직 상승하 다시피 하여 올라가는데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았다. 케이블카는 중간 기착지인 플랑데레귀(Plan de Laiguille- 1,317m)에 도착하여 모두 내렸다. 이곳에서 또 다른 케이블카로 바꿔 타고 에귀디미디 전망대로 올라가니 짙은 안개로 앞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몽블랑 스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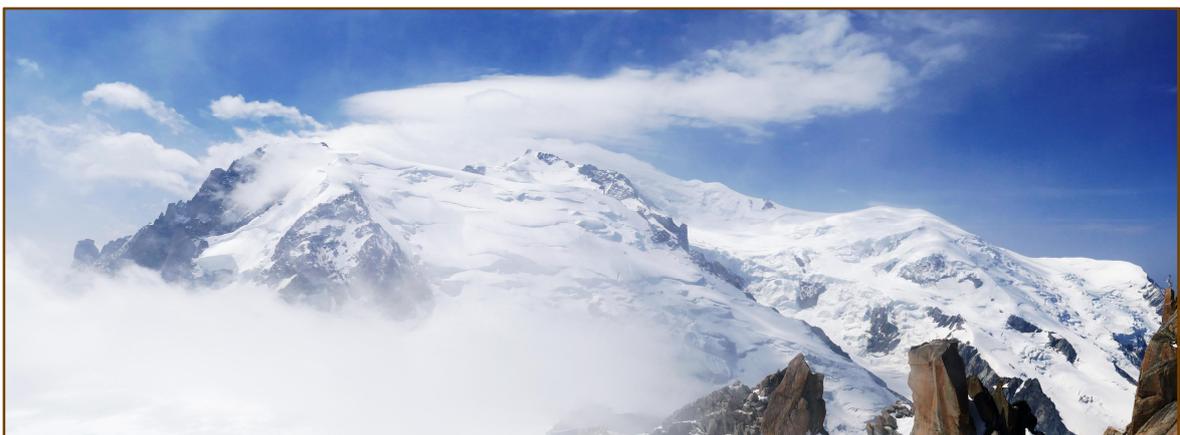


탑승순서를 알리는 전광판



샤모니 몽블랑의  
벌티패스

전망대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안개가 조금이라도 열린 곳이 있을까 하고 왔다 갔다 애를 써 보았지만 실패한 곳이 없었다.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 시간 정도를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맑은 하늘이 열렸다. 전망대에서 몽블랑(Mont Blanc-4,810m) 봉우리를 올려다보니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봉우리를 감쌌다



구름속의 몽블랑

가 벗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몽블랑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알프스 산군의 웅장한 모습을 수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12시 30분쯤에 우리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되돌아 내려왔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태국음식점에서 중국식 찜빵과 해산물 볶음밥 등을 주문하여 점심식사를 했다. 태국식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좋았다.

점심식사를 하고 곧바로 몽블랑을 건너다 바라볼 수 있는 브레방(Brevent-2,525m) 전망대로 올라가는 곤도라 탑승장까지 도심을 지나 20여분을 걸어서 갔다. 이곳 곤도라 탑승장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바로 탈 수가 있었다. 여기에 설치된 곤도라도 거의 수직 상승하여 전망대로 올라간다. 중간에 프랑프하(Planpraz- 1,999m)라는 곳에서 갈아타고 방향을 바꿔 전망대까지 올라갔



브레방(Brevent) 전망대



몽블랑과 빙하계곡

다. 전망대에 오르면 멀리 건너다보이는 몽블랑이 더 웅장하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알프스의 위용과 몽계구름이 합쳐지고 흘러내리는 듯한 빙하계곡이 한 폭의 달력 그림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정신없이 카메라에 옮겨 담고 있는데 곤도라의 운행 종료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라고 알려준다.



브레방에서 바라 본 몽블랑과 에귀디미디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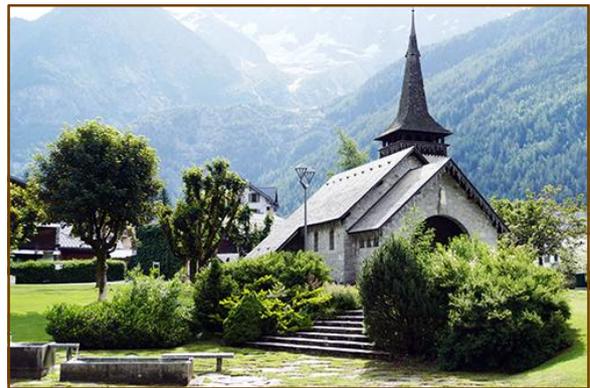
부랴부랴 카메라 가방을 정리하고 곤도라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 호텔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저녁식사를 하러 나섰다. 점심식사를 하러 갔던 태국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알프스 사진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다.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짐 가방을 호텔에 맡겨두고 콜레몽테(Col des Montets- 1,461m)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 시내버스 타는 곳에서 2번 버스를 타고 10여분을 가다가 다시 1번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Les Praz Flegere

라는 버스정류장에 내렸다. 1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소에 마련된 긴 의자에 노부부가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부부가 얘기해 주기를 콜레몽테는 당분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폐쇄되



버스정류장 표지판



Les Praz Church

었다고 한다. 자기들은 곤도라와 산악열차를 타고 오르는 레 우슈(Le Houches)로 간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우리도 방향을 바꿔 노부부를 따라 가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홍콩 사람이고 할머니는 네델란드 사람이라고 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주위를 둘러보는데 조그만 하고 아담한 Les Praz Church라는 교회가 있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열심히 사진도 찍었다. 한참 지난 후에 노선버스가 왔다. 노부부와 함께 1번 버스를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 레 우슈로 갔다. 버스에서 내려 곤도라 타는 곳을 찾아가 르쁘하히옹(Le Prarion-1,900m)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Tramway 산악열차를 탈 수 있는 꼴데보자(Col de Voza- 1,653m)까지 30여분을 내리막길을 걸어서 내려갔다. 그곳에서 다시 산악열차를 타고 르 니 데글르(Le Nid daigle-2,380m)까지 올라갔다.



Tramway산악열차

산악열차를 탔는데 내가 타고 있는 열차 맨 앞자리에 인상이 좋은 중년부부가 아이들 일곱 명을 데리고 타고 있었다. 중년부부는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아이들의 시중을 듣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 제일 큰 아이가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것 같고 제일 막내아이가 이제 막 두세 살 정도 보이는 아이는 엄마 품속

을 파고들며 낯선 사람인 나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모두가 너무 다정하고 행복해 보여 어머니께 모두가 한 가족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 저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일상으로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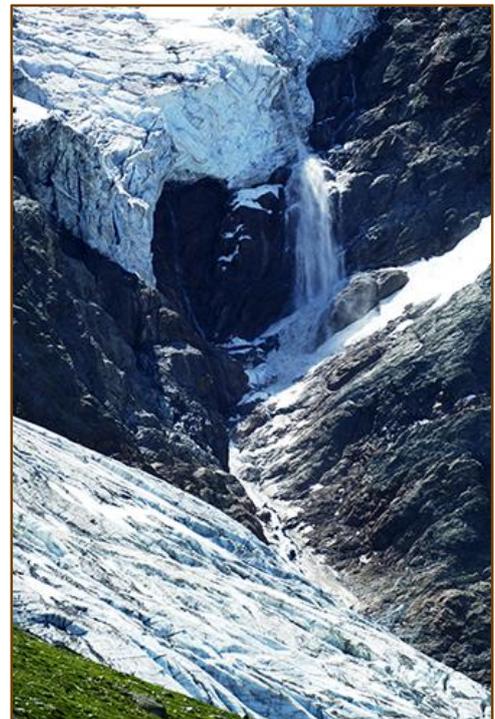


다정다감하고 행복한 가족



Tramway 타는 곳에서 알프스 산군을 바라보며

사방으로 둘러싸인 몽블랑의 알프스 산군의 위엄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야에 들어오는 풍광이 너무 멋지다. 노부부는 그곳에서 위쪽으로 10여분을 올라가면 커피 파는 곳이 있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며 헤어졌다. 그런데 건너편 빙하계곡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하의 일부 부분이 녹아 폭포와 같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린다. 처음보는 광경이다. 오후 2시 35분에 산악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역인 벨르뷰 (Bellevue- 1,794m)에서 내려 케이블카로 바꿔 타고 레 우슈로 내려와 1번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호텔로 가서 짐 가방을 찾아 택시를 불러 타고 오늘 가는 호텔이 샬모니에서 9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여 D1506번과 N205번 고속도로를 번갈아 잠시 달려 시골역인 레 우슈역을 지나



빙하가 녹아 내리는 모습

산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호텔 레 캠파넬 (Les Campanules)이라는 호텔이다. Check-in을 한 다음 방으로 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아주 구형이라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 짐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 방에 짐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호텔이 산속이라 근처에서는 먹을 곳이 없었다. 무작정 길을 따라 내려가니 한쪽에 인기척이 없는 레 우수 기차역이 있었다. 기차역을 지나 오르막을 올라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일반도로를 따라 식당을 찾아 내려가는데 길옆에 아주 오래된 스포츠 용품을 파는 SPORT 2000 CUBY SPOTRT라는 가게가 있어 잠시 들러 구경을 하고 나와 또 한참을 내려가니 옥외 식당을 겸한 Hotel Chris-Tal Restaurant이 있어 들어갔다. 우리가 들어가니 종업원이 햇빛을 가리는 파라솔을 쳐주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1km가 넘는 거리에 20여분이 넘게 걸렸다. 다행히 이곳에서 여행 마지막 날 밤의 저녁식사를 맛있게 하고 호텔로 오던 길을 따라 돌아갔다.



호텔 캠파넬(Les Campanules)

2017년 7월 4일 오늘은 10여일의 사진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경에 택시 2대를 불러 짐 가방을 싣고 샤모니역 (Station Chamonix-Mont-Blanc)으로 갔다. 9시 54분에 벨로신(Vallorcine)으로 가는 TER열차를 탔다. 벨로신에 도착하여 10시 31분에 마르티니 (Martigny)로 가는 R열차로 갈아탔다.



스위스 철도 노선표

마르티니에서 다시 11시 36분에 출발하는 비스프(Visp)행 IR90열차로 갈아탔다. 비스프에 도착하여 12시 24분에 취리히로 가는 급행열차 IC8열차로 갈아타고 베른을 경유하여 취리히역(Zurich Main Station)에 오후 2시 42분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다시 취리히 공항역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고 오후 3시 30분경에 취리히 공항역에 도착하여 공항 대합실로 올라갔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시

간 여유가 있어 공항터미널의 간이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했다. 서울/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Check-in 카운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수속을 마치고 보안검색과 출국신고를 하고 탑승게이트로 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탑승하여 현지시간 저녁 7시 30분에 이륙하여 7월 5일 오후 1시 35분경에 인천공항에 무사

히 도착하여 알프스 사진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2019년 8월의 무더위 속에서  
현과 김 승 년 글/사진





OFFICE DE TOURISME  
VALLÉE DE CHAMONIX-MONT-BLANC  
☎ +33 (0)4 50 53 00 24  
www.chamonix.com

**VALLORCINE**  
MONT-BLANC

**ARGENTIÈRE**  
MONT-BLANC

**CHAMONIX-MONT-BLANC**

**SERVOZ**  
MONT-BLANC

**LES HOUCHES**  
MONT-BLANC

**TÉLÉCHARGEZ GRATUITEMENT**  
l'application officielle de la Vallée de Chamonix-Mont-Blanc pour iPhone, Android et iPad ! Webcams, météo, remontées mécaniques, forfaits, conditions montagne, transports... Toutes les infos indispensables de la Vallée dans votre poche !

**DOWNLOAD**  
the official Chamonix-Mont-Blanc Valley App for free on iPhone, android and iPad platforms! Webcams, weather forecasts and updates, lifts and passes, mountain conditions, transport updates. All the essential information you'll need about the Valley... in your pocket and available at the touch of a button.

**Partagez votre expérience de la Vallée de Chamonix !**  
Share your Chamonix Valley experience!



0 1 km 2 3 4 km  
Convention ACTUALI +33 (0)2 20 39 20 30 / CA2099  
Nombres d'autorisation 653-7248P/12-17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UTORISATION







알프스 3 대미봉'

## 융프라우-마테호른-몽블랑

(Jungfrau /4,158m)-(Matterhorn/4,478m)-(Mont Blanc/4,808m)

2019년 6/25(화)~7/5(금) 11일

### 1일차 6/25(화)

10:00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대한항공 카운터앞 모임-출국수속

12:30인천(ICN)공항출발(KE917)-(비행소요시간12시간/시차7시간)

17:30스위스/취리히(ZRH)공항도착-입국수속

19:00 베른<경유>→인터라켄(Interlaken)이동(ICE열차/2시간)

- 취리히 공항(Zurich Flughafen) <19:46>→베른<20:58>환승  
베른<21:06>→인터라켄(Interlaken Ost) <21:57>도착

22:30 호텔체크인(인터라켄1박)

숙소: Hotel Interlaken(+41 33 826 68 68)

### 2일차 6/26(수)

07:00 호텔조식

08:05 인터라켄ost역<산악열차탑승>→<08:38>라우터브루넨<케이블카탑승>  
→ <08:58>뫼렌 도착→트레킹 시작

#### ▷뫼렌트레킹(Murren Trekking)

거리 및 소요시간: 4.5km / 2시간

루트: 뫼렌(Murren1,634m)→그뤼지알프(Grutschalp/1,489m)  
→트레킹종료

★ 라우터부르넨까지 산악열차를 이용하여 이동 후 케이블카를 타고 뫼렌까지 이동합니다. 뫼렌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융프라우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 뫼렌을 출발하여 그뤼지알프까지의 하이킹 루트는 기찻길을 옆에 두고 평탄한 길을 걷는 구간이며. 아이거(Eiger),뫼히(Monch),융프라우(Jungfrau)산군을 조망 할 수 있습니다

13:00 인터라켄 점심-인터라켄ost역-그린델발트 이동

17:00 호텔체크인(인터라켄2박)

숙소: Downtown Lodge Grindelwald (+41 33 853 08 25)

### 3일차 6/27(목)

07:00 호텔조식

08:00 그린델발트역<산악열차탑승>→알피글렌→클라이네샤이덱

(KleineScheldegg) →아이거글렛처→융프라우요흐역

이동→<엘리베이터탑승>스핑크스전망대(3,454m)-자유촬영

★ �핑크스전망대에서 아이거북벽, 융프라우, 뫼히봉 등 베르너 오버란트 알프스의 주요 연봉과 알레취 빙하의 환상적인 풍광을 촬영합니다

11:00 융프라우요흐역<곤돌라탑승>-아이거글렛처역<산악열차탑승>-클라이네샤이덱역-그린델발트 하산

13:00 그린델발트(점심)→케이블카탑승장이동<도보15분>

15:00 그린델발트<케이블카탑승>→피르스트(Frist/2,168m)이동

▷피르스트→바흐알프제호수 왕복트레킹 (3시간)

★ 그린델발트를 출발하여 피르스트까지 곤돌라를 타고 이동하면, 휘르스트역 뒤쪽부터 트레킹이 시작되며 바흐알프제(Bachalpsee)호수까지는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푸른빛의 바흐알프제 호수에 반영된 그림 같은 융프라우 산군을 촬영합니다.

17:00 피르스트<곤돌라탑승>→그린델발트 하산<산악열차탑승>→빌더스빌 이동

19:00 호텔체크인(인터라켄3박)

숙소: 히스토리호텔 슈타인보크(+41 33 823 30 01)

### ♥오늘의 일정 및 관심사항♥

#### \*융프라우(Jungfrau /4,158m)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는 산악인뿐만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융프라우, 뫼히 두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는 스위스의 명물인 톱니바퀴 열차로 쉽게 오를 수 있어 멋진 풍경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으로 'Topof Eurooe' 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4일차 6/28(금)

07:00 호텔조식  
08:30 빌더스빌역(산악열차탑승)-쉬니케플라테 이동  
★ '햇볕이 비치는 평지'라는 뜻의 쉬니케플라테 주변의 야생화군락촬영  
12:00 쉬니케플라테<산악열차탑승>→빌더스빌역 하산  
14:00 빌더스빌 (중식/한식)  
15:00 빌더스빌역→인터라켄ost역→스피즈(Spiez)→비스프(Visp)→  
체르마트(Zermatt) 이동  
20:00 호텔체크인(체르마트1박)  
숙소: Holiday Hotel (+41 279 66 04 00)

♥오늘의 일정 및 관심사항♥

인터라켄에서 체르마트로 이동합니다.

5일차 6/29(토)

07:00 호텔조식 후 마테호른글레시어파라다이스케이블카탑승장  
이동/도보10분>  
09:50 마테호른글레시어파라다이스탑승장<케이블카탑승>→슈바르제→  
트로케너슈테그→마테호른글레시어파라다이스전망대((Matterhorn  
Glacier Paradise/3,883m)이동-자유촬영  
11:00 마테호른글레시어파라다이스전망대→트로케너슈테그(트레킹 시작)

▷마테호른 글레시어 파라다이스 트레킹(Matterhorn- Glacier  
Paradise Trekking)

거리 및 소요시간: 5.5km / 4시간

루트 : 트로케너슈테그(TrockeneSteg/2,939m)→슈바르제  
(Schwarzsee2,583m)→트레킹 종료

★ 뽕족하게 솟은 마테호른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며 빙하 위를 걷는  
트레킹으로 평지와 내리막,오르막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구간. 트레킹  
중에는 다양한 빙하지형을 볼 수 있고. '검은호수'라는 뜻의 슈바르제  
호수와 초록빛 초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6:00 슈바르제<곤도라탑승>→푸리→체르마트(Zermatt)→호텔이동  
21:00 (체르마트2박)

숙소: Holiday Hotel (+41 279 66 04 00)

## ♥오늘의 일정 및 관심사항♥

- 1, 4,000m 이상의 38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체르마트는 아름다운 알프스 전통가옥들로 가득한 산악마을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에는 하이킹을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 2, 기차역을 중심으로 주요 레스토랑과 카페, 상점, 호텔 등이 모여있어 도보로 여행하기에 적합하고 청정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은 전기자동차와 마차가 시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6일차 6/30(일)

07:00 호텔조식

08:30 <지하'후니쿨라'탐승/3분소요>→슈네가파라다이스

(SunneggaParadise/2,288m)이동

최신식<8인승 곤돌라탐승/약20분소요>→블라우헤르드

(Blarherd/2,588m)전망대 이동

#### ▷슈네가파라다이스 트레킹(Sunnegga Paradise Trekking)

거리 및 소요시간: 7km / 5시간

루트 : 블라우헤르드(Blarherd/2,588m)전망대 곤돌라

탐승장 → 슈텔리제(Stellisee/2,537m)호수 왕복 트레킹

- ★ 블라우헤르드를 출발하여 야생화와 거울 같은 슈텔리제호수에 비친 마테호른을 촬영합니다

13:00 블라우헤르드

<곤돌라탐승/약20분>→슈네가파라다이스<후니쿨라탐승>체르마트→  
호텔이동

21:00 호텔체크인(체르마트3박)

숙소: Hotel Adonis (+41 279 66 25 00)

### 7일차 7/1(월)

07:00 호텔조식

08:00 <산악열차탐승>→08:33 고르너그라트전망대(3,089m)도착

-3,098m에 위치한 고르너그라트(Gornergrat)전망대는 마테호른을 비롯한 알프스의 4,000m 봉우리 29개를 조망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 만년설과 빙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군을 촬영합니다.

10:00 고르너그라트(Gornergrat/3,089m)→트레킹시작

### ▷리펠제 트레킹(Riffelsee Trekking)

거리 및 소요시간: 3.5km / 2시간

루트:고르너그라트(Gornergrat/3,089m)→

리펠제(Riffelsee/2,766m)→리펠베르그(Riffelberg/2,582m)

→트레킹종료

★ 호수에 반영된 마테호른이 아름다운 리펠제는 기차역에서 가까워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 외에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으로 평생 간직할 사진 한장을 꼭 만들어 봅니다.

리펠제를 지나 마테호른을 바라보며 리펠베르그 까지 하산을 계속합니다  
하산길은 끝없는 초원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내리막길 입니다.

13:22 리펠베르그<산악열차탑승>→13:51 체르마트 도착→호텔이동

14:00 체르마트 시내 (중식)

15:13 체르마트역 <기차탑승>→16:35 비스프(Visp)→17:46

마르티니(Martigny)→18:38 벨로신(Vallorcine)

19:12샤모니도착. (2시간9분소요)

21:00 호텔체크인(샤모니1박)

숙소: 샬레 호텔 르 프리요레(Chalet Hotel Le prieure)

(+33 450 53 20 72)

### ♥오늘의 일정 및 관심사항♥

1, 체르마트 일정을 마치고 샤모니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 8일차 7/2(화)

07:00 호텔조식

08:30 <케이블카탑승>→몽땅베르역→플랑데레귀→에귀디미디전망대이동  
(Aiguille de Mide/3,842m)→자유촬영

14:00 에귀디미디전망대<케이블카탑승>플랑데레귀→몽땅베르→  
샤모니 하산(점심)

14:00 케이블카탑승)→플랑프라즈(Planpraz)→브레방(Brevent)

전망대이동→자유촬영  
17:00 샤모니 하산→호텔이동  
21:00 호텔체크인(샤모니2박)  
숙소: 샬레 호텔 르 프리요레(Chalet Hotel Le prieure)  
(+33 450 53 20 72)

### 9일차 7/3(수)

07:00 호텔조식  
08:30 <노선버스타승>→Les Houches이동→<곤돌라탑승>르 파라리온(Le Prarion/1,900m) 이동  
<도보30분 트레킹> Bellevue,1,794m→<산악열차탑승>-Nid D'Aigle/2,372m 이동  
13:40 <산악열차탑승>La Chalette→<곤돌라탑승>→Les Trabets 하산  
15:00 <노선버스타승>샤모니 몽블랑역 이동  
19:00 호텔체크인(샤모니3박)  
숙소: 샬레 호텔 레 캄파뉘(Chalet Hotel Les Campanules)  
(+41 50 54 40 71)

### 10일차 7/4(목)

07:00 호텔조식  
샤모니 시내 자유관광 및 기념품구입  
09:54 열차로 취리히공항이동(5~6시간소요/열차4번 환승)  
09:54 샤모니 몽블랑역 출발→10:44/벨로신(Vallorcine)→11:43  
마르티니(Martigny)→12:28 비스프(VIsp)→15:12 취리히 공항  
도착  
16:30 취리히공항 도착/출국수속  
19:30 취리히(ZRH)공항출발(KE918)<약11시간소요/시차7시간>

### 11일차 7/5(금)

13:35 인천(ICN)공항도착 /일정종료